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6월 26일(주일) 제1105호

2016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

##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자!

### 순백의 마리아 3,051명 “예수님 닮아갈 것” 결단 3일 동안 무릎 꿇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

2016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이 막 내렸다. 지난 22-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에는 순백의 마리아 3,051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가정과 다음세대, 교회와 사회를 위해 부르짖었다.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은 3일 동안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 것을 결단하는 자리였다. 첫째 날은 '예수님처

럼 바라보다'를 주제로 집회가 진행됐다. 그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은 가정과 다음세대를 품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중호 판사(부산가정법원)는 “비행청소년들도 미래의 주인공”이라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품고, 섬겨야 한다”고 했고, 유정옥 사모(소중한 사람들 대표)는 “마리아들의 기도, 헌

신, 봉사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둘째 날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다'가 주제였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담임)는 “가장 진실한 회개를 할 때 가정,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고, 탈북청년 강디모데 형제(엔케이피플 대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통일시대의 리더를 키

우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전우택 교수(연세대학교 의학교육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개인적, 일상적, 소시민적 삶에 머무는 기도에서 사회적, 역사적, 공적인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셋째 날 집회는 '예수님처럼 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주연 목사는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했고,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적극적인 나눔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희 사모(강릉 아산병원 원목)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관련기사 8-9면>

마리아행전은 2002년 '여성사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여성기도 부흥운동이다. 2006년부터 마리아행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마리아들처럼 이 시대 여성들도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마리아가 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1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마리아들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다음세대, 교회와 사회를 위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7월 10일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캠페인

7월 10일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이다. 자가용 대신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빙고는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살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스티

커를 발부해준다.

동작대교 위 갓길, 삼익아파트, 반도아파트 주변 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다.

양재는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 주차장(양재환승, 구림, 시민의 숲)도 이용할 수

없다. 외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도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걸어서 와야 한다. 대신 양재역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이 운행된다.

사회선교부가 주최하는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캠페인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7~8월 온누리신문은 여름 아웃리치 특집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사진을 공모한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아웃리치 현장 사진, 글을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

내주면 본지에 게재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준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onnuri-weekly@gmail.com)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지역주민, 이주민, 군인, 어르신을 위하여!

## 국내 여름 아웃리치 지역 추천

1. 전라도, 경상도
2.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 시즌이 돌아왔다. 본지에서는 아직 아웃리치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공동체, 사역팀, 대학청년부, 차세대 부서에 '국내 여름 아웃리치 지역'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동안 본지에 보도된 국내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기독교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목계교회



나눔선교교회



임마누엘선교교회



소망교회



성원교회



참 소망의 집

## 강원도 강릉시 목계교회

목계교회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에 위치해 있다. 전형적인 산골교회다. 은종기 목사가 섬기고 있다. 목계리는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 없는 지역이었다. 은 목사가 26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고난도 참 많았다. 주민들에게 먹살을 잡히고, "교회가 생기면 마을사람들 다 죽는다"는 소리로 들렸다. 목계리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옆친 데 댈친 격으로 교회와 3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절(사자암)이 생기면서 영적전쟁까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절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목계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짜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며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지금은 목계리 이장도 집사이고, 많은 주민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계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목계리에는 25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의료사역(링거), 이·미용봉사, 기독교문화잔치(찬양콘서트, 연극공연)등이 마을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계교회는 아웃리치팀원 50~60명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나눔선교교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에는 교회가 단 두 곳 밖에 없다. 8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말이다. 나눔선교교회는 그 두 교회 중 한 곳이다. 최삼범 담임목사와 온누리교회에서 국내선교사로 파송 받은 서찬교 장로가 섬기고 있다. 최 목사는 20년 전 오이도에 들어와 컨테이너에서 빈민목회를 시작했다. 10년 전

에 나눔선교교회를 개척했다. 나눔선교교회는 성도가 20명 남짓인 아주 작은 교회다.

최 목사와 서 장로는 오이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회 옆 공터에 '나눔센터'를 만들어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노래자랑, 노인대학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 때마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받은 일당으로 충당하고 있다.

오이도 나눔선교교회로 아웃리치를 가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오이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다. 나눔선교교회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방은 따로 없지만 본당에서 20~30명이 잘 수 있다.

## 경기도 동두천시 임마누엘선교교회

경기도 동두천시 임마누엘선교교회는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근로자들을 섬기는 교회이다. 변용성, 윤병희 부부선교사가 섬기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근로자들이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예수 만나고 구원 받고 있다. 타국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도 위로받고 있다. 예배는 이주근로자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예수 만난 이주근로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흔하다. 소중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온누리교회 순장사관학교에서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주근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윤병희 선교사는 "지역주민 전도와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필요하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임마누

엘선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은 15명 남짓이다.

## 남양주시 55탄약대대 소망교회 원주시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

사전에 협의만 되면 군교회에도 아웃리치를 갈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55탄약대대 소망교회는 온누리교회 간사 출신 고영수 목사가 섬기고 있다. 원주시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는 온누리교회 성도 출신 정경구 목사가 섬기고 있다. 두 목회자 모두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다. 사례비가 없다. 교회 유지비, 간식비, 유류비 등 모든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고 있다. 사정은 열악하지만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고영수 목사는 믿지 않는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상담대학원에 진학했고, 정경구 목사는 4년 동안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행사와 군종병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55탄약대대와 8966공병대대에는 각각 200명의 장병들이 살고 있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가서 믿지 않는 병사들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와 군종병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군부대에서는 잠을 잘 수 없다. 인근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 충청북도 제천시 참 소망의 집

참 소망의 집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노인보호시설이다. 최상례 원장이 섬기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갈 곳이 없는 66세부터 100세 어르신 25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참 소망의 집에서 예수 만나고 천국 가신 어르신이 60명이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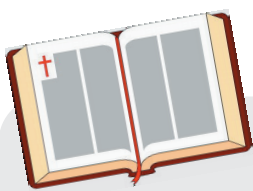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최 원장은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참 소망의 집을 세웠다. 지난 16년 동안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다. 명절에도 참 소망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참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간, 재산, 건강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지난해 7월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져 의식을 잃기도 했다. 가족들이 치료치료를 하라고 보내준 돈도 참 소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사용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말이다.

참 소망의 집 아웃리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다. 아웃리치팀원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참 소망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벨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이름            | 주소                                     | 문의                    |
|---------------|----------------------------------------|-----------------------|
| 목계교회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1494-5               | 은종기 목사 010-3222-7343  |
| 나눔선교교회        | 경기 시흥시 오이도여시창로 27                      | 최삼범 목사 010-4274-3927  |
| 임마누엘선교교회      | 경기 동두천시 어수로 29-21 임마누엘선교교회             | 윤병희 선교사 010-9205-9180 |
| 55탄약대대 소망교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리(군 보안상 상세주소는 밝힐 수 없음) | 고영수 목사 010-3137-6566  |
| 8966공병대대 성원교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군 보안상 주소는 밝힐 수 없음)     | 정경구 목사 010-2363-3321  |
| 참 소망의 집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구학산로7길 22-12 (벨엘교회)       | 최상례 원장 043-652-6455   |

\*상기 교회들은 본지에서 취재한 교회들입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조지 허버트는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해변의 아름다움이 기도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폭풍 속에서 짝아집니다. 미사여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수식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등의 짧은 단어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집니다. 바로 이것이 폭풍 속에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폭풍은 고난 속에서 항해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은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기가 길어진 이유는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속에 임재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은 “과거에 내가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돌아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폭풍우로 쫓아갔습니다. 요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입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요나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 성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다지 큰 호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의 수면과 지형의 특성 때문에 큰 바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10미터 이상의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댕던 작은 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파도가 칠 때 멀리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한 제자는 그 모습

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왜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 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4:32-33).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경배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실 때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그들에게 걸어들어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한결같이 경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폭풍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돈이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폭풍이 찾아오면 홀로 버림받은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절망에 빠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아주 먼 길입니다. 3,2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해안선을 따라가다 ‘루기아’라는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야호’라는 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배를 갈아타고 ‘크레타’라는 섬까지 가는데 역풍이 불어서 속도가 더뎠습니다. 크레타 섬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잠시 정박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항해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일기를 봐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10월 중순 정도였는데 이때부터 11월까지가 위험한 기간입니다. 11월 이후에는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보다 더 위험한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가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역풍이 계속 부는 것을 보고 감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경험, 상식,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

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행 27:9-10).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문장이 시간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위험한 때이고, 역풍이 부는 것을 봐서 항해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과학과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대개 바다와 친숙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했습니다.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다에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세 번이나 난파한 경험이 있다고 했고, 한 번은 하루 반 동안 바다에서 나무기둥을 붙잡고 표류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바다에 친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은 위험한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의 말보다 선주와 선원들,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배를 운행하는 선주와 선장도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항해를 결정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갈아탄 배는 곡물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손실이 많았습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수송시간이 길어지면 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난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이익을 보자는 인간의 욕심이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서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항해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내려오자마자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몰타 섬에 상륙하기 전까지 표류했습니다. 상당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도 몰타 섬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표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구명정을 붙잡아 두고, 선체를 밧줄로 동여매고, 닻을 내려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비를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까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

고 애를 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 오래되자 결국 그들은 소망을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행 27:20).

요즘 같이 GPS가 없는 시대에는 해와 별이 지도였습니다. 해와 별이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고 폭풍이 불어오니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닻을 내려도 소망의 닻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 주님의 임재 앞에 영혼의 닻을 내려라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 당하고 있는 바울만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담대했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22-26절).

사도 바울은 이 위기에서 세 가지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폭풍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폭풍을 바라봤다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폭풍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이 이뤄지기까지는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너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는 음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성은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3면에 계속)**

## 기획\_차세대와 청년

1. “꿈이요? 공무원 아니면 건물주”
2. 응원하는 1세대, 보여주는 2세대, 배우는 3세대
3. 이 시대 청년 25인, 교회에 길을 묻다
4. 교회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

## 이 시대 청년 25인,

진로, 연애와 결혼, 취업과 직장생활, 부모로부터 독립 고민  
결국 취업난, 조기퇴사, 만혼(晩婚),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청년 25명이 교회에 길을 물었다. 본지에서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청년 25인을 섭외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연애와 결혼, 취업과 직장생활, 독립과 정체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을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방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든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기자

2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청년들의 고민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20대는 취업준비, 30대는 연애와 결혼, 부모로부터 독립, 40대는 직장생활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거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전부 아니었다.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몹시 버거워 보였다. 이 시대 청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방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비전, 사명, 꿈이 없다  
부모와 타인의 시선 의식해 진로선택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과반이 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부모나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진로를 선택한다고 했다. 자신의 비전이나 사명, 꿈이 없고, 부모나 타인들이 보기에 괜찮은 학교나 직업을 선택하고 있었다. 일부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들 스스로가 가진 비전과 사명, 꿈보다 부모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높아진 취업문이 청년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직장에 어렵게 입사해도 일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적은 연봉, 직장동료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신입사원 조기퇴사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재직 1년 이하 신입사원 퇴사율이 28%나 된다고 한다. 자신의 비전이나 꿈을 찾아서 진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단 ‘불고 보자’ 식의 지원과 부모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결정한 진로가 적성에 맞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걸요?”  
연애와 결혼? 필수가 아니라 선택

이번에는 “연애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응답자 절반이 연애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한 것도 놀라운데 연애도 선택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왕성하게 연애하고, 미래의 배우자를 만날 예정연습을 해야 할 시기의 청년들이 말이다. 그 이유는 스펙 쌓기 때문이었다. 해외 어학연수, 인턴십, 자격증 취득, 높은 학점 등 쌓고 또 쌓아도 쌓을게 천지인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또 그렇게 열심히 자기개발해서 전문성을 길렀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녀 양육하면서 그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에는 아깝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청년실업 사태도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만혼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 36세, 여자 33세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자 25세, 여자 24세 증가했다. 결혼연령이 증가하다보니 자연스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청년들의 진로, 취업, 결혼, 출산은 나라의 미래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 꿈꾸지만  
현실이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었다. 그들의 또 다른 고민은 부모로부터 독립이었다. 이직, 상사와의 갈등, 급여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부딪히고 극복해야 할 위기가 산재해 있었다. 심리사회학자 에릭슨(1902~1994)은 인간의 발달단계를 8단계로 설명하면서 청년시기에 친밀감을 획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친밀감 획득에 실패하면 고립감을 갖게 된다고 했다. 청년시기에 공부를 마치고, 취업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A자매는 지방에서 상경한지 꽤 오래됐다.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혼자 생활하게 됐다. 그녀의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대학교 학비를 대주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 형편이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었다. 하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다보니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생활비가 지출되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100만원이었는데 월세,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를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를 조금 더 주는 회사로 이직했는데 곧 실직했어요. 지금은 부모님이 월세의 절반을 내주고 계세요.”

A자매는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B형제는 유학을 준비 중이다.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에서 인정받으려면 유학은 필수 코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B형제의 유학은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독립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유학을 갔다 와도 취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을거예요.”

물론 스스로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독립을 한 청년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도 녹록찮은 것은 마찬가지다. 아니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30대 초반 C자매는 경제적으로 힘든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대기업에 다니던 아버지가 IMF 때 월급이 대폭 감봉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비를 제

외한 나머지 비용은 받지 않겠다”고 경제적 독립을 선언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과 학원비를 직접 벌기 시작했다. 과외만 3개를 뒀던 적도 있다. 과외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루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순간부터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돈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20대 초반부터 몇 부리는 것도 꿈도 못 꿴어요. 천 원짜리 옷도 사보고, 3천 원짜리 스킨도 발라봤어요. 또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25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년 전 완전히 독립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독립은 취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돈을 벌어야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이야기가 달랐다. 부모의 도움 없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이다. 신혼집 1억 9천 174만원, 웨딩패키지 344만원, 예물 1,826만원, 예단 1,832만원, 혼수 1,628만원, 신혼여행 535만원, 예식장 2,081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에 스펙 쌓느라 여념 없는 시기를 보내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에 성공하면 30세가 다되는데 청년들 스스로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혼현상과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 교회에 길을 묻다

막막해서 ‘N포세대’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다. 포기하면 편하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 ‘연애와 결혼’  
“연애관, 배우자상 알려 주세요”**

결혼저력기인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잘 나가는 교회오빠, 교회누나도 피해갈 수 없다.

A형제는 소개팅만 나가면 “과연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한다.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수천가지다. 청년들의 속사정을 모르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조언하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결혼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B자매는 자신이 한 배우자 기도에 꼭 맞는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기도한 배우자 기준은 평범(?)하다. 믿음 좋고, 신앙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형제면 된다.

이렇게 평범(?)한 조건을 가진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걸까.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청

년들이 많다. 과연 올바른 연애관, 배우자상이 무엇일까. 청년들은 그것을 몹시 궁금해 했다.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C형제는 같은 공동체 자매와 사귀다 얼마 전 헤어졌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같은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와 연애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같은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와 공개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다. 헤어지고 나서는 더 고통스러웠다.

“저처럼 힘든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비공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에 연애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결국은 알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입니다. 참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D형제는 솔로가 된 지 10개월 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자매는 넉리스천이었다. 믿는 배우자를 원하는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준비했었다.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관련된 갈등으로 결국 이별했다. 크리스천과도 연애를 해봤지만 신앙과 관련된 갈등으로 실패한 적이 있었다.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응답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라

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 지키기  
일과 직장생활 균형 맞추기도 힘들어**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조직문화와 신앙생활 사이에서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었다. 그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술 문화와 직장에서 소명을 찾기 못하는 것이었다.

해외영업부서에서 근무했던 30대 A형제는 업무특성상 술접대가 많았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술접대를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결국 회사를 선택했다.

B자매는 건설업에서 금융업으로 이직했다. 평소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신념대로 첫 회식 자리에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다행히 술을 강요하는 상사는 없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재는 뭔데 술을 안마시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회사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마다 시험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신앙을 어떻게 연관 지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중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B자매는 주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고민이다. 그 연관성을 찾는다면 직장생활이 덜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속상하다.

성악을 전공한 C자매는 일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순장과 성가대를 섬기고 있다. 일하라 사역하라 두 가지 역할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솔직히 버거울 때도 있다.

“일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역에 지쳐 일에 소홀하기도 하고, 일에 지쳐 사역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할 때도 많 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년차 직장인 30대 D형제도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의 균형 맞추는 일을 몹시 힘들어 했었다. 5년 동안은 일과 신앙생활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했는데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모든 요일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말고는 이겨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 전문가 기고 취업, 이렇게 준비하라!

## 취업과 마라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취업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채용 규모가 급격히 떨어졌다.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35.8%만이 신입사원을 채용했고, 46.7%는 채용 계획조차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34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비정규직과 취업포기자 수를 합하면 체감실업자는 179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조선, 해운업계를 비롯한 다수 업종에서는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마다 졸업을 유예하고 도서관이나 고시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력서를 수십 번이나 내 보지만 서류전형 합격소식조차 받아보기 힘들다.

최근 기업들의 채용 시장 동향은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우수한 인재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인·적성 검사가 강화되고, 정부차원의 국가직무표준(NCS) 도입이 증대되고 있다. 과도한 스펙보다는 무스펙 전형이 일반화되어 실무능력 검증작업이 강화되고 있다. 삼성이 스펙을 보는 서류전형을 없애고 직무에세이를 작성하

게 하여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현대나 LG는 필기, 면접전형에서 역사지식을 테스트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실무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균형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둘째, 취업현장은 Job의 미스매치로 구인,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급여가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현실도와 무관하게 입사를 기피해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선 인턴십 후 채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무능력과 인성 등을 파악하고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입사 1년 내 퇴직자가 2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인재보다 조직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호하여, 인턴십을 통해 인성 좋은 인재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다.

넷째, 기업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방법의 면접전형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은 인성파악 및 직무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단계별 면접에서는 수행과제가 실시되는데 PPT작성과 발표가 진행되고, 경영진의 면접참여도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등산, 술자리 동석면접, 합숙 면접 등이 진행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취업준비생들은 적성에 맞게 목표를 선정해야 한다. 먼저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나 기관의 채용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대학 저학년 시기에 목표 선정이 빠를수록 취업 성공확률이 높다. 미리 준비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면접에 대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격증 및 공인 영어 평가 등급을 취득하는 등 구체화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목표 선정에 있어 특정 기업을 한정짓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선호하는 업종을 선정하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업종 내의 기업을 집중 공략하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주요 기업의 채용 정보를 수집하고, 경제신문을 보면서 경영정보 지식도 축적해야 한다. 그레아만 해당 업종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방향성 없는 입사지원은 시간과 정보의 부재를 가져오고,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직무 적합성 평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인의 희망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방학 중 실시되는 기업 실무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도 적극 참여하여 직무 능력을

함양하고, 대학교의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조직 적응에 필요한 인성을 키우고, 밝은 미소를 짓는 훈련도 지속해야 면접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취업준비는 마라톤과 같다. 수십 번 서류전형을 시도하고 불합격 고배를 맛보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취업 경쟁 환경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은 본인이 마라톤 주자라고 생각하고 체력과 자신감을 배양해야 한다.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불합격했을 때의 사유를 파악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느헤미야는 인내와 끈기의 인물이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 숏한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백성들을 독려했고, 적의 방해를 막기 위해 경비병을 배치하는 등 성전건축을 치밀하게 수행했다.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맞춤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형석 교수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영학과, 수원 복누리공동체)

## 안동 신전교회 화장실 준공예배 드린 날

양재 농어촌선교회, 신전교회, 주민들이 함께 한 천국잔치

작지만 큰 예배를 드렸다. 정말 특별한 예배였다. 천국잔치가 벌어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안동 신전교회 '화장실 준공예배'는 말 그대로 천국잔치였다. 안동 신전교회 교인들은 물론이요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축하해줬다. 그 흥겹고 뜻 깊은 현장에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다녀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19일,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 소속 팀원(방찬중 장로, 임신빈 팀장, 황의관 부총무, 이신영 권사, 김경혜 권사, 어은경 집사, 구인순 집사, 정유근 집사, 김정숙 성도) 9명이 안동 신전교회를 향했다. 화장실 준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세 시간여를 쉬지 않고 달려 경상북도 안동에 도착했다. 그야말로 녹색물결이었다. 신전교회로 가는 길은 높고 험한 산자락이 이어졌다. 녹음을 자랑하는 논밭의 식물들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너른 사과밭과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진 곳에 안동 신전교회가 있었다.

###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감동과 기적

안동 신전교회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다. 한 경숙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무하고 있다. 한 목사는 신전교회에 부임한 첫 날 충격을 받았다. 교회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 곳곳에 공사하다만 흔적들이 가득했고, 화장실이 없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목사는 연로한 성도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편지를 썼다.

“이재훈 목사님께. 저희 신전교회에 화장실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꼭 도와주십시오.”

이재훈 담임목사의 지시로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안동 신전교회를 찾았다. 건축, 설비전문가들로 이뤄진 재능기부팀원들이 5주 동안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화장실을 새로 지어줬다.



▲ 양재 농어촌선교회, 신전교회 성도, 주민들이 활짝 웃고있다.

지난 19일 마침내 공사를 끝내고 화장실 준공예배를 드렸다. 신전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마을주민들도 참석했다. 신전교회 화장실은 화장실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새로 생긴 화장실은 아늑하고 근사했다. 하얀색 페인트칠을 한 외벽과 깔끔한 타일과 도기세면기, 간이 샤워장, 아가자기한 물방울무늬로 된 샤워커튼도 인상적이다. 양재 농어촌선교회 양정남 권사와 박대성 집사는 3일 전부터 신전교회에 머무르면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 신전교회 성도들도, 마을주민들도 화장실 구경하면서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화장실 준공예배 드리러 온 손님들을 위하여 한 목사가 크게 한 톱 냈다.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준비한 것. 평소 교회에 발도 들어놓지 않은 주민들도 모였다.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 안동 신전교회,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풍성한 식탁교제를 나눴다.

모두들 신전교회에 화장실이 생긴 것을 자기 일처럼 좋아했다. 양재 농어촌선교회 방찬중 장로는 “화장실 준공을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어 더 뿌듯하다”고 했다. 신전교회 엄정옥 집사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이라며 행복해했고, 엄 집사의 남편 임성종 집사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날 신전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 예배당 만든다는 마음으로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이 신전교회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양재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원(김관근 장로, 한형식 장로, 임수길 팀장, 양정남 권사, 박대성 집사, 이인필 집사, 조현준 성도, 조용대 집사, 김동준 집사, 정필용 성도, 정병희 권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5주 동안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공사를 진행했다. 새벽 5시에 서울에서 안동으로 출발해서 자정이 넘도록 일했다. 어떤 날은 며칠씩 머무르면서 공사에 매달렸다. 신전교회 성도들이 하루라도 빨리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화장실을 완공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공사보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시공했다. 자재 선택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 체크해가며 화장실을 만들었다. 열과 성을 다했



▲ 이번에 준공한 화장실(교회 왼쪽).

다. 가능한 좋은 자재를 쓰려고 노력했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샤워시설도 만들었다.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예쁜 샤워커튼도 달았다. 신전교회 이곳저곳도 수리했다. 배관이 훤히 드러나 흉물스러웠던 신전교회 부엌 천장에 타일을 붙였고, 예배당 창문에 방충망도 새로 달았다. 방충망이 없어 무더운 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다.

신전교회 화장실 신축공사를 주도한 임수길 팀장은 “다들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팀원들도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 시간과 정성을 쏟은 덕분에 신전교회 화장실을 완공할 수 있었다”면서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정남 권사는 “단순히 화장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만드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새로 생긴 화장실은 신전교회 성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양재 농어촌선교회가 만들어준 신전교회 화장실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다. 믿지 않는 마을 주민들에게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고,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화장실 문제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다.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경숙 목사  
(안동 신전교회)

교회 곳곳에 공사하다만 흔적들이 가득했고

신전교회에 화장실이 생긴 것은 감동과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신전교회에 부임했을 때 정말 암담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이 화장실 문제로 겪은 불편을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성도님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분은 교회에 오기 전년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로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화장실이 꼭 생겼으면 했는데 온누리교회가 그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 재능기부팀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집을 만들어도

### “전도하는 동네 화장실로 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체였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큰돈을 받고 일해도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자재를 쓰려고 사방으로 발품을 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 쓰신 마음들이 화장실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더군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지어주신 화장실을 이용해 전도할 것입니다. 이 화장실을 마을 주민들께도 개방할 것입니다. 이 동네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도 있고, 샤워시설이 있어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잘 쓰지 않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라도 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동네 화장실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감동과 기적을 선물해준 온누리교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청년들



윤동환 형제

윤동환 형제는 서빙고 주일 2부 예배 챔버 바이올리니스트다. 유일한 청일점이다. 날렵하고, 섬세한 연주를 선보이는 매력적인 연주자다. 흔히 듣던 음악도 그가 연주하면 다르다. 신선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의 연주 속으

## 바이올리니스트 윤동환 형제가 무대에 서는 이유

로 깊게 빠져들게 된다.

최근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가 내한공연을 하는데 그에게 협연을 제안한 것.

윤동환 형제의 일상은 바이올린으로 시작해서 바이올린으로 끝난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이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해준 비결이다.

##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하기까지

그저 음악과 바이올린이 좋아서 독일행 티켓을 끊었다. 지인이 그를 독일의 한 음악학교에 추천해서 입학시험을 보러 갔다. 유럽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에 교수와 학생이 만날 수 있다. 독일에서 그를 담당했던 루돌프 쿨만 교수(Rudolf Koelman)가 그를 한국식당에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보더니 연주를 듣고 싶다고 했다. 루돌프 교수는 그의 연주를 듣고 학교에 입학하라고 먼저 제안했다. 무료로 레슨을 해 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루돌프 교수님은 은인 같은 분이세요. 자신이 스위스로 가게 됐는데 함께 가고 싶다고 하

시더라고요. 루돌프 교수님 따라 스위스로 갔어요.”

그는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언어가 현지인만큼 익숙하지 않아 시험을 볼 때마다 곤욕을 치렀다. 스위스는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를 사용하는 나라다. 윤동환 형제는 독일어를 사용했다. 한국에서 온 학생이 전체 10명도 채 되지 않은 곳에서 쫓듯하게 버티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동안 그의 삶과 신앙은 별개였다. 아니 신앙과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화를 보고 믿음이 확고해졌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머물렀다. 전 세계에서 모인 바이올리니스트 50인이 참석하는 캠프에서 3주 동안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그는 2년 연속 참가했다. 그곳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의 거장 솔로모 민츠를 만났다. 그는 세계적인 연주자이자 심사위원이다. 윤동환 형제는 이스라엘 캠프에서 잠을 줄여가며 연습에 매진했다. 그의 성실함이 또 한번 빛을 발했다. 바이올리니스트 50인 중에서 최고의 연주자로

발탁됐다. 그는 스위스 취리히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으로 졸업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우수 점수를 받고 졸업했다. 2012년에는 스위스에서 서프라이즈 콘서트 아티스트로 발탁되기도 했고,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에서 순회 연주를 했다. 체코 작곡가 야담 스쿠말의 집시 변주곡을 성공적으로 초연하기도 했다. 유럽과 국내 음악계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국립경향교향악단, 아르도르필하모니아,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기도 했다. 제26회 음악저널 신인음악상을 수상했고, 2016년 삼성 라이징스타 시리즈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리사이틀 공연도 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것이 제가 연주하는 이유입니다.”

6월 29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 연세  
6월 30일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말씀으로 다음세대 교육하는 장진경, 장유리 자매

장진경, 장유리 자매(W공동체)는 유대식 교육방법 ‘하브루타’를 실시하는 ‘HES(Havruta English School)’ 어학원 및 영어 유치부를 운영하고 있다. 언니가 원장이고, 동생이 부원장이다. 이곳에서는 5세부터 11세 어린이들에게 유대식 교육법 하브루타, 뮤지컬, 영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 평일 오전 6시 30분에는 W공동체 홀리스타(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비전이자 사명이다.

##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장진경, 장유리 자매는 올해 3월 HES어학원을 오픈했다.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결정했다.

언니 장진경 자매는 어릴 적부터 언어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 동생 장유리 자매는 발레와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언어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부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녀들을 유학 보냈다. 엄마와 두 자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가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사했다.

언니 장진경 자매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영어와 러시아어를, 동생 장유리 자매는 예술학교에서 발레와 성악을 수료했다. 자매는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을 졸업했다. 언니는 졸업 후에 대기업 해외사업부에 입사했다. 그런

데 직업특성상 외국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직업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제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고민 끝에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예수제자훈련학교(DTS)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오랜 시간 기도 끝에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고,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장진경 자매는 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원에서 조기영어교육학 공부를 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아동학 학사, 보육교사 자격도 취득했다. 동생 장유리 자매는 자신의 달란트로 다음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영어뮤지컬을 만들게 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가르친다는 비전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그즈음 멘토목사에게서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에 대해 듣게 됐다.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한 자매는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 배웠다. 심도있게 하브루타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HES어학원을 차리게 됐다. 지금 그녀들은 성경전체를 하브루타 방식으로 다음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교육법을 개발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HES어학원은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는 공간이기도 하다. W공동체 새벽기도회(홀리스타)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생 장유리, 언니 장진경(오른쪽) 자매

## 하브루타 교육이란?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의 핵심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 위주의 교육법이 바로 하브루타다.

하브루타 교육의 유익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노벨상 수상자 30%, 세계적인 석학,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받았다. 하브루타는 히브리어로 친구 또는 짝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방법이다. 하브루타는 교사, 제자, 부모가 삼박자를 이루는 교육을 추구한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도 그만이다. 핵심은 부모나 교사가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 하브루타 교육 이렇게 하면 된다

먼저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책(신문, 잡지, 만화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을 정한 다음 소리를 내어 읽고 듣기를 반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면 부모가 답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책을 보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거나 일상에서 겪은 대화들을 시도한다. 자연스럽게 함께 읽은 책 이야기를 꺼낸다.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질문하면서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답하도록 유도한다. 처음에는 부모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하거나 몹시 피곤해질 수 있다. 그래도 자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물음표를 계속 남겨둬야 한다.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

# 공홀과 섬김, 회개와

“♪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순백의 마리아 3,051명이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2016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은 감동 그 자체였다. 예배당을 하얗게 물들인 마리아들은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다.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에서는 예수님처럼 바라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다, 예수님처럼 살다를 주제로 주옥같은 강의를 이어졌다. 강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이웃들에게 7가지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홀, 섬김, 회개, 기도, 소망, 변화,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마리아들의 기도는 분명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기록했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2016 마리아행전 강사들. 이재훈 목사, 천종호 판사, 유정옥 사모, 이주연 목사, 윤정희 사모, 이한영 교수, 전우택 교수, 강디모데 형제(시계방향).

##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것은 세상과 다음세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의 포문을 열었다. 이 목사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우리 몸의 창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면서 “머리와 심장이 아닌 몸 속 깊이 있는 창자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군가의 마음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한 생명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다.

연단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것. “연단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을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기쁨을 바라보신 것처럼 연단과 고난 이후의 기쁨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비행청소년도 미래의 주인공”

천종호 판사(부산지방법원)는 7년째 비행청소년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그가 강단에 오르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로 불린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갈 곳이 없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사법형 그룹홈 1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천종호 판사가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단호했다. 비행청소년도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것.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와 관심이라고 했다. 비행청소년 43%가 결손가정이며, 부모로부터 방치, 유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학대받던 아동들이 청소년이 되면 살기 위해 기출하고, 먹고살기 위해 생계형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그런 비행청소년들에게는 누군가의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비

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서 끝까지 품고,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명의 씨앗을 심자”

유정옥 사모(소중환사람들 대표)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들려줬다. 그녀의 아름다운 삶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택도 없는 시골 교회에서 방이 없어 커튼을 치고 살았다. 매일 점심을 거르는 마을 어르신 한두 분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다 교회 한쪽에 매트리스 2개를 설치하고 호스피스 환자를 섬겼다. 부모를 잃은 아이 2명을 입양했다. 지금은 매월 1만 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시 청평면에 호스피스 병원도 세우고 있다. 전 세계 각지의 고아 200여 명도 후원하고 있다.

그녀는 “기도, 헌신, 봉사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고 고백했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개”

“회개만이 가정,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분단, 고령화, 실업이 바로 그것이다. 존경하던 원로목사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해답을 찾았다고 했다.

“기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바로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목사는 기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 기도, 소망과 변화, 그리고 사랑



2016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에 마리아 3,051명이 참석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까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오병이어 기적처럼”

강디모데 형제(엔케이피플 대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통일, 북한인권,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그가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아무도 탈북민들을 돕지 않아서다. 탈북민들을 어떻게 도와야할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한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너의 것을 나에게 줘라.”

통장에 30만원이 전부였다. 그 돈을 뽑아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에게 보내고, 또 돈이 모이

면 보내기를 반복했다. 그 일이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의 시발점이 되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헌신 그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지금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세우는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기도의 변화 그리고 도약”

전우택 교수(연세대 의학교육과, 정신건강의학과)는 “개인적, 일상적, 소시민적 삶에 매몰되어 있는 기도가 사회적, 역사적, 공적인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성경인물 한나를 예로 설명하면서 그녀의 기도가 10년이나 지속된 것보다 기도와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

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 1:11).

한나도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10년이라는 애통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나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 “적극적 나눔과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 19:9-10)는 말씀을 통해 “작은 것으로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덧붙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있는 나그네들도 사랑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 “믿음으로 순종하는”

윤정희 사모(강릉 아산병원 원목)는 아이를 열 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그녀는 “마리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입양해서 키웠다”면서 아이를 입양한 이유를 밝혔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전통, 관례,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굴레,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했다.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인터뷰

###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고”



성명자 권새(이춘공동체)

“마리아행전 집회가 올해로 10년째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사실 시간이 10년 정도 흐르면 초심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마리아행전 ‘예수님처럼’에서는 바로 그 초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보는 것이 무

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미의 마음과 긍휼함 없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저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행하겠습니다.”

### “매일 두 시간씩 중보기도하는 마리아”



이미림 성도(양천공동체)

“그동안 저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집을 달라,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왜 기도의 열매가 없는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두 시간씩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북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 “가정, 사회, 이웃을 위한 마리아”



김병숙 권새(용산공동체)

“매번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객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웃음이 많은 엄마와 아내가 되고, 사회에서는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고, 질서를 잘 지키는 등 기본적인 규범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재능을 나누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빵과 반찬을 만들어 나눌 것입니다.”



웹드라마 '스드메'의 한 장면.

## 웹드라마 '스드메' 국제영화제 K웹페스트 초청작 선정

여호수아공동체 제작, 8월 29~31일 삼성동코엑스

여호수아공동체가 제작한 웹드라마 '스드메'가 웹드라마 전문 국제영화제 K웹페스트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K웹페스트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 17일 온누리신문에

보도된 청년드라마 '스드메'에 관한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다. 웹드라마 스드메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준말이다.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독교 영상물이다. 50여 명의 여호수

아공동체 스태프들이 밤샘 촬영을 해가며 6개월 동안 제작했다. 박준모 감독은 "K웹페스트의 공식 초청을 받은 일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 '군형법 92조 5 합헌' 서명

지난 주일(19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된 '군형법 92조 5 합헌' 서명운동에 온누리교회 성도 2만7천573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 다음날(20일) 서명과 함께 군형법 92조 5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군형법 92조 5는 군대에서는 동성 간 합의 된 성관계도 금지한다는 법

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서 이 법안이 위헌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소연 성도(서빙고공동체)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동성애를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 영성집회 '주안에서 동과 서의 만남'

참가자 모집, 8월 1~4일 호놀룰루에서 개최

2016년 하와이 영성집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주안에서 동과 서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영성집회에서는 리처드 포스터 교수, 작가 필립

얀시, 이동원 목사, 이재훈 목사, 박은조 목사, 강준민 목사, 조봉희 목사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www.wehawaii.org

010-4260-5090

/ 김현준 기자

## 통일세미나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통일세미나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 로드맵'을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7월 9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하층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저녁식사 제공).

통일세미나에서는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를 들을 수 있다. 김광진 전 평양컴퓨터대학 교수, 김홍광 전 함흥공산대학 교수, 박종철 남북통합연구센터 소장 등이 강의한다. 통일에 관심이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이성주 총무 010-2631-0536

/ 김영선 기자

## '네팔 희망의 집짓기' 모금 캠페인

8월 31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에서 '네팔 희망의 집짓기'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 8월 31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금캠페인은 2015년 발생한 지진으로 파괴된 네팔 고레다라 마을을 돕기 위한 운동이다.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집, 학교,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이번 모금캠페인의 목표다.

네팔 희망의 집짓기 모금 캠페인

에는 판넬 1장(3만원), 시멘트 1포대(1만원)를 후원할 수 있다. 집 1채를 짓는데 판넬 43개와 시멘트 10포대가 들어간다.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산마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와 내부도로를 구축하였고, 주택 39채를 짓고 있는 중이다. 교회와 학교도 세우고 있다.

문의: 02-2271-224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6월 세레자

#### ■서빙고

김기순 491111  
윤병수 770810  
고혜경 820923  
이승연 811226  
이연복 840129  
박준경 780430  
윤경원 770814  
성나연 810317  
윤용석 600210  
전영옥 680515  
정연옥 800219

#### 입교

김성일 850819  
허신일 960301

#### 유아

박지유 140905  
박문호 이민정  
박지찬 140905  
박문호 이민정  
김여준 150723

김재민 김환주

박하린 141113

박성덕 조선경

신 쿨 160401

신일수 신명혜

안예영 141110

안도희 최은화

윤주원 150708

윤석민 고은영

은혜라 140905

은정기 노유미

이재은 150410

이동형 정희정

임다은 140603

임채민 이경은

임하윤 140905

임현섭 이은하

최지아 140609

최정우 류승희

최지우 150902

최정우 류승희

#### 열린새신자예배

서지현 880408

이재준 800417

임지연 740904

전용준 790717

전은주 741102

최민성 770915

#### ■양재

김서영 701025

백승필 840504

오영석 820705

오주는 820508

윤문정 760803

이은애 820228

조정환 721010

정연홍 700101

정종윤 620120

정혜진 871126

최은영 690825

#### 유아

강지서 150228

강호완 서수경

금 별 160302

금 현 서은영

금비안 140416

금 현 서은영

김리애 151120

김종찬 홍혜전

김시우 141220

김정훈 박민정

김은호 150504

김광원 정다운

노하영 150723

노형민 최은미

박하린 140911

박선홍 정지은

서지후 150119

서인용 채윤희

손제인 140612

손원일 이수연

오지후 140615

오윤걸 원연아

윤하준 140802

윤종원 최선희

이 강 150514

이 완 오소랍

이지은 151130

이충현 김은혜

장하준 150403

장재호 강정현

정하임 150103

정태남 금홍아

강지은 150323

강은용 조선우

박원석 140803

박성규 이지현

서은우 140920

서의성 백인혜

송하연 150717

송유준 김미영

이유주 151031

이승엽 박소연

#### ■대학청년부

##### 요셉

백지연 880803

##### 하늘

강수지 950912

신수아 900508

##### 허브

홍채령 960927

이주연 971003

##### SNS

이하경 861029

이학유 910617

최은지 870119

##### 입교

신선길 820607

##### W

##### 입교

박승리 830501

##### 유아

이샤인 150211

이주현 문은경

## 선교기관 선교세미나 개최

온누리교회 선교기관 선교세미나가 오는 28일(화) Acts29 비전빌리지 하층 목사 기념채플에서 오전 9시에 열린다.

2000선교본부, Acts29 비전빌리지,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미션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넬슨 제닝스 목사가 '선교책무', 조나단 봉크 목사가

'Life in the Body'를 주제로 강의한다.

넬슨 제닝스 목사는 선교재정전문가다. 일본 선교사로 10여 년 동안 사역했다.

조나단 봉크 목사는 해외선교연구기관 편집위원으로 보스턴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 김미림 기자

## 스타트리 아카데미 교사 모집

안산온누리M센터 다문화 차세대 사역 '스타트리 아카데미'에서 한 국어회화, 중등수학, 중등영어, 피아노 교사를 모집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봉사할 수 있으면 된다. 봉사가능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장소는 안산온누리M센터 1층에 있는 스타트리 아카데미다.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2010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개설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과 적응, 학습능력 키우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 조준기 총무교사

010-4444-2802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 호남선교 순례를 다녀와서



/ 김정은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 문준경 전도사를 만나다

지난달 양지 온누리교회 온유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1박2일로 호남선교 순례를 다녀왔다. 전남 신안군 증도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순천 기독교역사 박물관, 전남 여수 애양원,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을 탐방하는 일정이 몹시 기대 되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을 방문한 일정이 이번 순례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 그녀의 삶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동네 유지였던 문재경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17세에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갔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면서 생과부로 살았다.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글을 배웠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목포에서 바느질 가게를 열었다. 그때 전도부인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 경성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증도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한 해에 고무신 아홉 켤레가 닳을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앞장섰다. 그녀가 개척한 교회가 전남 신안군 일대에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증도에만

11개 교회를 개척했다. 그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에 교회 앞 바닷가에서 59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자식도 가져보지 못하고 소박맞은 여인이었다. 남편 있는 과부라는 조롱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었다고 한다. 고통과 절망 그 자체였다. 한 많은 여인 문준경의 삶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180도 바뀌었다.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던 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었듯이 말이다.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지친 여인 문준경이 예수를 만나면서 강한 여인이 되고, 나중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었다. 암흑 같은 곳을 성령의 불로 혁명시킨 전도사가 되었다. 나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생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호남 순례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져볼 수 있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우치는 좋은 기회였다. 나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 창조과학탐사를 다녀와서



/ 김숙경 성도(마포공동체)

## 창조, 그 놀라운 신비

뼈 속까지 문과인 내게 과학은 늘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에 막혀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은 내가 꼭 알아야 할 숙제였다. 창조과학에 대해 알기 위하여 43명으로 구성된 팀원들과 1박2일 동안 창조과학 탐사를 떠났다.

먼저 전라남도 증도의 해변에 있는 주상절리를 방문했다. 전에는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면서 감상하고 지나쳤던 풍경이었다. 그런데 주상절리에 숨어 있는 창조과학에 대해 설명하는 강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감상만 하고 지나칠 수 없었다.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의 흔적을 배우면서 더욱 집중하게 됐다. 감탄의 연속이었다. 눈꺼풀의 비늘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았다. 곧 선명하게 보일 날을 기대하게 되었다.

창조과학탐사 둘째 날은 전남 해남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다녀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화석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공룡이 한국에도 살았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공룡 화석지에 앞서 퇴적구조라는 물결자국을 보았다. 처음 보는 물결자국(연흔)이 놀라웠다. 그 순간 내 뇌리에 창세기에 기록된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라는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아의 홍수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행하신 심판의 흔적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선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진화론적 해석으로 가득한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능가하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창조과학 전시관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꿈이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소리 높여 외치시던 말씀이 귀에 쟁쟁했다.

“여러분 돈 갖고 뭐할래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진화론을 기본교육으로 받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구세주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자 심판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

## ■ 전도폭발훈련을 마치고



/ 정은영 성도(노원공동체)

## 엄마의 구원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무렵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면서 가족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나는 가장 먼저 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다.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든든한 지원군 언니와 함께 아빠, 엄마,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아침 언니와 나는 아빠의 영혼구원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다. 그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찬송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은영아! 아빠의 영혼이 나의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었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남동생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남동생 방을 정리하다 동생이 군대에서 세례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동생 영혼도 받으셨죠?”라고 말하며 하염없이 운 적이 있다.

엄마만큼은 살아계실 때 구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다. 엄마를 믿지 않는 부모 초청 맞춤형전도집회에 초청했지만 마음을 쉽게 여시지 않으셨다. 내 마음 한편에서도 ‘언젠가 엄마도 구원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엄마의 구원이 한 해 한 해 늦춰지고 있었다.

올해 전도폭발훈련을 받게 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불이 붙었다. 엄마에게 “복음 한번 들어봐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엄마가 언짢아 하실까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였다. 엄마는 복음은 들으셨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 엄마가 그 다음날 순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엄마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나의 체면이 깎일까봐 순모임에 참석했다고 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은 엄마에게 복음의 소나기를 맞게 하셨다.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기를 원한다. 주의 사랑줄로 나와 엄마를 굳게 매어주시기를 기도드린다.

## ■ 한동대학교 학생 간증



/ 김범준 학생(한동대학교 16학번)

##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려라

나는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서아시아로 갔다. 현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받고, 문화를 배웠다. 나는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녔다. 1년은 대전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고, 나머지 3년은 독일에서 다녔다. 하나님은 독일에서 미국 그리고 다시 나를 한국으로 인도하셨다.

한국에서 많은 대학에 원서를 제출했고 한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한동대학교는 내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고마운 곳이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늘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한동대학교에서 만난 형 한 명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줬다. 그 형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열심히 살았다. 한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만나 프로젝트’를 이용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 만나 프로젝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800원짜리 한식 메뉴를 100원에 먹을 수 있다. 그 형은 모든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갔다. 그 형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겪었던 좌절과 실패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 그 덕분에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도시계획과 건축을 공부하고 싶은 나에게 참 좋은 경험이다. 나를 선교사 자녀 모임으로 이끌어준 양재 권사회와 마민호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선교사 자녀 모임에서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가진 또 다른 선교사 자녀들을 만난 덕분에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과 환경도 주어졌다. 선교사 자녀 모임에서 들었던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크리스천은 타국에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는 나그네와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인생 속에 극복해야 할 지식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려라.”

## 장로칼럼

### 말씀의 파수꾼



양충식 장로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이다.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이곳에서 대적자 사탄과 싸운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다. “만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고후 4:4)라는 말씀처럼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을 가두고, 혼미하게 한다. 사람의 생각을 가리고, 의심하게 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진노의 자녀(엡 2:3)가 되게 한다.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수(롬 8:7)가 되게 한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려고 한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핵심적으로 공격한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로 교만을 부추기거나 비겁을 강요해 그들의 권세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우리 스스로를 감정의 동물이라고 인식하도록 속이고, 악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마음을 혼돈다.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삶을 강요해서 대적자의 울무에 걸리도록 유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꾀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전쟁의 군사들이다. 우리가 대적자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 모든 상황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상황 뒤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의 실체를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길목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온전한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말씀의 파수꾼이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매일 깨워야 한다. 지식과 경험, 습관으로 자만하고 비겁했던 생각의 길목마다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짜증과 분노, 피해의식과 연민, 변명과 자기합리화의 욕구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휘둘리지 않고 가차 없이 돌아설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미 7:8).

한국 사회는 극심한 경쟁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세대들이 이러한 환경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오직 믿음과 마음으로 생각을 지킬 때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 권사칼럼

### 주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곳에



심혜숙 권사  
(영등포구로공동체)

몇 년 전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영등포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다. 임 목사님은 노숙인과 쪽방촌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셨다. 하루에 500인분의 밥을 지어 먹이고, 입히고,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다. 나는 임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몹시 궁금했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금흥사역본부(현 사회선교부)로부터 광야교회에 성탄선물로 쌀과 이불, 컵라면, 초코파이 등의 생필품을 가져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3평 남짓한 방은 가재도구를 놓고 한 명이 겨우 누울만한 좁은 공간이었다. 한 남자 분은 전등을 켜지 않고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전등을 일부러 켜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청소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광야교회 11시 예배를 드렸다. 임명희 목사님께 몇 주 전 새벽기도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나도 5백 명을 먹이는 식탁에 수저라도 놓고 싶다고 말씀 드렸다. 그때부터 주일에는 식사봉사를 돕고, 토요일에는 쪽방촌을 돌면서 전도를 했다. 쪽방촌을 돌면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문지방에 걸터앉아 전도를 했다. 냄새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같이 전도하던 집사님이 내게 “기도해 보세요. 냄새가 안 나기를 말이에요”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 그 집사님 말대로 기도를 하고 쪽방촌을 갔는데 신기하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

다. 한번은 쪽방촌 안에서 심한 신음 소리가 들렸다. 방문을 열어보니 당뇨환자가 당이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었다. 급히 119에 연락을 취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환자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 다음 주에 그 환자의 집을 다시 찾았다. 사망 한 봉지를 사들고 가서 몸이 괜찮은지를 물었다. 그분은 미소로 괜찮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사탕이라도 드시라며 사탕봉지를 드렸다.

또 다른 이웃을 찾아갔다. 내 큰딸만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손의 피부가 빨갛게 벗겨져 있었다. 다쳤냐고 물었더니 어떤 남자가 손을 만져서 계속 씻었더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쪽방촌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정말 많다. 그들을 섬기는데 있어서 불문율이 있다. 절대 그들의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아픈 과거가 있고,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권사회는 2013년부터 광야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격주로 토요일에 식사봉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1다락방 1사역지로 선정해 섬기고 있다. 어디를 섬겨야 할지를 기도하다 이곳을 결정했다. 주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곳에서 있었더니 사역을 확장시켜 주셨다.

영등포 광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는 80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 중 절반은 청년들이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공부할 시기를 놓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고 있다. 그들은 한글반, 컴퓨터반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 올해는 검정고시반을 개설했다. 벌써 한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치렀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감사하고 뿌듯하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린다.

## 신앙에세이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지난 5월 미국 콜롬비아 대학과 예일대학 연구팀이 180개국의 공기의 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73위였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마시는 공기가 저렇게까지 나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도는 180개국 중에서 1위였다. 미세먼지로 더 이상 맑은 날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아이들도 감지하는 사실이다. 그동안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문명을 발달시켰다. 그 문명이 독이 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한 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 공기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다(창 1:28).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라는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매연을 줄이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최소한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아름답게 관리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둘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공기정화에 일조하는 일이다. 공기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공장이고, 그 다음이 자동차다. 서울의 매연배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자동차 1대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한 사람이 15~30일 쉴 수 있는 산소를 1시간 만에 소비해 버린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연배출을 최소화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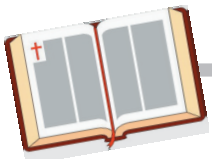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셋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사회선교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나라가 없다. 대

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은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우주를 사랑하고 돌보는 첫 발자국이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계의 많은 기관들이 비관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 미래에 도래할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환경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볼 보듯 뻔하다. 과거에는 전쟁이 역사를 움직였다면 미래에는 환경이 역사를 움직일 것이다.

넷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은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미래운동이다. 지난 6월 9일 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9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당 조기 사망자 수가 약 1,100명 될 것인데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매년 5만 5천 명 정도가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

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34개 OECD국가 중에서는 1위다. 이 같은 발표는 대기 오염도를 낮추는 운동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은 물론 좋은 환경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교회 주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현하는 선한 행실이다. 주일날 성도들이 불법주차해 둔 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 불만을 해소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오죽 화가 나면 그럴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옳지 못한 행실이 주님께 나오는 통로를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7월 10일 실시되는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는 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 거룩한 불편함에 가까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무조건적인 보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을 잘 보십시오. 무조건적인 보호의 약속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이 좌우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표류하는 배의 영적 선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사람들의 생명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표류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영적 선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절망에 빠져있고, 선원들은 몰래 구명정을 띄워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떠나면 남아 있는 사람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백부장이 구명정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도망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폭풍을 피할 길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폭풍 속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폭풍 속에 있는 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뜻을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닻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아시고, 역사를 결정하시고,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은 영혼의 닻을 내

리십시오.

## 이 시대의 영적 선장

사도 바울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재판 받을 때에도 영적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영적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또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이 생명을 네게 맡겼다”고 했을 때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장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먹을 수 있었습니까. 흔들리는 배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슨 식욕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날이 밝아 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여 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 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33~36절).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말씀을 믿었고, 믿음 속에서 안

심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했습니다.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따르지 않고 보고 따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날 수 있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랄프 에머슨은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칠 때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폭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임재 하셔서 영혼을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폭풍 속을 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아무리 험한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바라보지 않고, 사명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표류하는 배 속에 있는 바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 시대 영적 선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 선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지만 선장 역할을 했고, 군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진짜 지도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타냅니다. 폭풍이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누가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뜻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임재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내릴 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폭풍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폭풍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기교 프랑스어예배와 디모데미션



엘리자 마르팡 사역자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  
찬양사역자)

필자는 4개월 전에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를 섬기러 오신 티네 베 목사님 부부를 도우러 한국에 왔다. 프랑스어예배 찬양사역을 섬기고 있다. 한국의 형제자매들과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쁨 그 자체이다.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를 섬기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디모데미션’을 소개하고자 글을 썼다.

디모데미션은 1972년 창설된 개신교 독립교단이다. 프랑스 남쪽 세벤느 중심에 위치해 있다. 디모데미션은 프랑스는 물론 해외에 30여 개의 교회와 기쁨센터 세웠다. 프랑스 세벤느에 있는 디모데미션에는 20여 채의 숙소가 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거나 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를 얻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디모데미션의 사역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이사이서 54장 2절 말씀을 따라

매년 여러 번의 수련회와 말씀캠프를 개최한다.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따라 성경공부, 미션훈련 등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것이 디모데미션의 목적이다.

디모데미션에는 선교에 마음을 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1년에서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잠시 직업을 내려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 청년들은 디모데미션과 초창기부터 함께한 목사, 장로, 책임자들로 구성된 강사들에게 훈련을 받는다. 세대 간 협력을 통해 견고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나도록 돕고 있다. 훈련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각자의 여정을 시작한다. 내려놓았던 일터로 돌아가거나 목회자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필자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디모데미션에 왔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16살이 돼서야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필자의 죄와 삶의 타락된 곳이 어디인지를 눈앞에 가져다 놓으셨다. 그와

## 그 아름다운 우정과 동역이 영원하기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끝없는 기쁨을 알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다. 다양한 시련들을 통해 진정한 내면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필자가 23살 때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가장 풍요로운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짐을 나누어지고, 꺾음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셨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즈음 디모데미션에서 동역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2015년 1월부터 선교사이자 컴퓨터 그래픽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필자는 디모데미션에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는 다른 영적인 가족을 만났다.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배웠다. 만약 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약 1년 반 전에 시작된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와 디모데미션의 우정과 동역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심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헌 몽골어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공고

모집: 양재 영선, 양재 조리원, 양재 보안

관리, 양지 가전, 서빙고 커피숍 각 1명

자격: 세례교인, 경력자(자격증 우대)

접수: bible81@onnuri.org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 간증문

문의: 총무팀(02-3215-3102)

생명의삶팀 디자이너 채용 공고

업무: <생명의삶> 표지,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1명)

서류마감: 6월 27일(월)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서빙고 커피숍 리모델링 공사

공사관계로 6월 27일(월)부터 7월 2일(토)

까지 커피숍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CMN라파뎐 의료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 진료봉사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상: 약사(둘째 주 주일 오후 4시~6시), 간

호사(넷째주 주일 오후 4시~6시), 치위생사

(첫째, 셋째, 넷째 주 주일 4시~6시)

문의: 심형섭 팀장(010-3227-9915)

한터 아코디언 기증 요청

내용: 탈북 청소년이 사용할 '아코디언'

문의: 한터(02-3463-9686)

한터 물품 모집

모집물품: 2층 침대, TV, 냉장고, 식기 등

(탈북대학생 기숙사에 사용될 비품)

모집물품: 의류, 가방, 약제사리, 장난감, 생

활용품, 운동기구 등(탈북민 수

련회 비용 마련위한 바자회용품)

바자회물품 기증 장소: 서빙고 신동아쇼핑

센터1층 사랑의출앗기

문의: 이재민 간사(02-3463-9686)

사회선교부(02-3215-3434)

창조과학 전임 간사 모집

사역: 일반 행정, 재무, 회원관리 등

모집: 전임 간사 1명(세례 교인)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자기소개서)

제출: 이메일 접수(desk@creation.kr)

문의: 02-419-6465

샘물중고등학교 2016 가을편입

대상: 예비중등(6), 중1~고1

마감: 7월 6일(수) 오후 5시

참조: [www.smca.or.kr](http://www.smca.or.kr)(입학안내)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채관부예배: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88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탄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제1105호 | 2016년 6월 26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종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3-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릉  
최원준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릉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목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봄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엘바인  
권학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ia
-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6658-1530  
(130-0012)Tokyo Onnuri Vision Church Saisei  
Kinsicho Bldg, 3F, 8-11, 2Chome  
Taihei, Sumita-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오사기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nsaisaiba Chuoku

-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아미나카 토모오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i 14, Saiin  
Woolyoku, kyoto japan

-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5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

- 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민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장쑤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국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종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중민 서경남  
최원준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림 강승윤 강일영 강일하  
권오환 권웅강 김경호 김관수  
김도환 김도균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환  
김요셉 김원배 김원식 김영창  
김요셉 김원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부목사(파트)

강미림 강승윤 강일영 강일하  
권오환 권웅강 김경호 김관수  
김도환 김도균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환  
김요셉 김원배 김원식 김영창  
김요셉 김원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엘 유승현  
김종호 변대섭 유승현  
김종호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김종영 김창성  
김창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전도사(파트)

강한성 김지영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점터하바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물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수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기계복합 및 안내  
시간: 기계복합(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옷자, 옷자, 옷자만 모집  
대상: 만 60세 이상 열정있는 시니어  
기간: 6월 ~ 11월  
장소: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봉사 특성에 따라  
자택가도)

내용: 1. 옷자캠페인(우울, 자살 예방 캠페인 진행)  
2. 응답하러 폰팅(어르신 안부 전화상담)  
3. 앤딩미디어(자서전 제작)  
4. 내 마음의 거울(미술치료 통해 자기 이해, 정서안정)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09:30 ~ 14:30)(시간 포함)  
활동내용: 식사제 다듬기, 배식, 설거지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제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시간: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키아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안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마을지점문밖)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소천

■ 결혼  
7월 2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분당  
문영기, 황명덕(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문현수(온누리교회)  
김규범, 전경란(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안수집사)의 딸  
김소현(온누리교회)

7월 2일 토요일 오후 14:00 서빙고 분당  
전준환, 손인숙(대구명강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전규원(신촌아름다운교회)  
김태순(온누리교회 집사)의 딸 최은주(온누리교회)

■ 소천  
6/16(목) 양재 최재원 집사 부친상 고 최용호 성도  
6/16(목) 중종로 한상준 집사 부친상 고 한상수 집사  
6/17(금) 마포 김영미 성도 모친상 고 최상임 성도  
6/17(금) 마포 류승진 성도 모친상 고 서연하 성도  
6/17(금) 양천 박순규 집사 모친상 고 류유순 권사  
6/18(토) 브릿지33+ 지은재 자매 모친상 고 김덕희 성도  
6/19(주일) 양천 김태훈 성도 부친상, 홍경아 성도 시부상  
고 김문배 성도  
6/19(주일) 중종로 김남정 집사 부친상 고 김용호 성도  
6/22(수) 강서 고은미 성도 모친상, 송충삼 성도 빙모상  
고 하복영 성도  
6/22(수) 서초C 이혜자 권사 시모상 고 안희숙 권사  
6/22(수) 강남C 임병수 장로 빙모상 고 양재정 집사



통일로 가는 희망 여정

#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4편

탈북꽃처녀,  
뮤지컬에 도전한다

“북에서는 정해진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남한에 와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에 온,  
전 북한 국가대표 사격선수  
**황소연의 뮤지컬 배우 도전기!!**



방송일자 : 2016년 6월 28일 (화) | 오전 11시 30분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

**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